

MADAGASCAR

- 최성수, 이경희 선교사 6월 기도편지 -

마다가스카르 소식

1. 5월 29일 마다가스카르 총선이 진행되었습니다.
2. 6월 21일 약 4.5 강도의 지진이 Mahatsinjo에서 발생하였습니다.
3.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남부사역(MANAKARA)

저희 부부는 4월 1~7일까지 마다가스카르 동남부에 위치한 '마나카라'라는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열대폭풍 사이클론의 영향으로 벼를 수확할 시기에 있는 논이 물에 잠겨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나카라에 가는 길만 2박 3일이 걸렸는데, 가는 길이 좋지 않아서 특별히 튼튼한 차를 렌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도중에 벌써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어렵게 마나카라에 도착했지만, 현지인 목사님(뚜끼)이 저희 부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인사를 나눈 후, 저희는 바로 필요한 물품들을 주문하고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 갔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다행히 그 지역에서 쌀을 구할 수 있었고, 기름과 비누 등 생필품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현지인 목사님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미리 파악해주셔서 바로 다음 날 세 지역에 구호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림책 영성코칭 사업

이경희 선교사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그림책 심리코칭 1,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마다에서 대학생 사업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림책을 도구 삼아 말씀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학생들과의 만남은 깊이 있는 나눔과 통찰로 이어져서 이경희 선교사에게도 도전과 성장을 주는 사업입니다.





만드리암베루 공립초등학교 사역

만드리암베루 초등학교는 그동안 저희와 함께 사역했던 마에바호까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리나'가 일반 교사로 전근 간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교장실도 운동장도 없는 매우 열악하고 작은 학교이며, 아이들이 밥을 못 먹어 학교에 못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 3월부터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두 번 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교실이 부족하여 오전 오후 반으로 학교가 운영되기에 특별한 사역은 시작하지 않았으나, 학교 방학이 시작되고 7월부터는 만드리암베루 초등학교 아이들과 마에바호까 아이들도 영어반/성경공부반을 개강합니다.

마에바호까 초등학교는 학자금 은행 외에는 모든 사역이 중단된 상태이기에, 초등학교를 성경공부 장소로 사용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계속 미루며 장소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떨립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 부부도 아이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성숙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초등학교 이불 나눔

겨울이 시작되면서 추워지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깜짝 담요 선물에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급하게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준비하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기도제목

1.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부부의 삶과 사역을 통해 흘러가기를
2. 마다가스카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뿌리 내려 더욱 단단해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 참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3. 8월에 오기로 예정된 선교팀의 사역과 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 연락처 ****

바울선교회 : TEL. 063-254-8418

***최성수 선교사**

카톡 ID : drewschoi2

***이경희 선교사**

카톡 ID: tsaramada